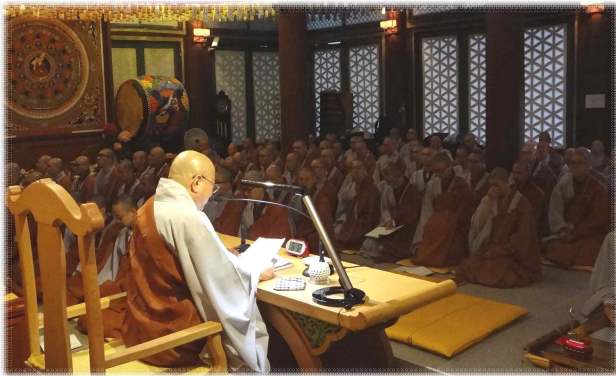


동안거 포살법회



◎ 25일(목), 원장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재학생님들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읽으며 지혜와 자비로 못 중생을 이끌어가는데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을 거듭 발원하셨습니다.

토요일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범요집 참조)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고전문학속의 우리여인들
- 법 사 : 김승호 교수 (국어교육과)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범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0.4(토)	한글창제의 주역, 신미대사	현장스님 (티벳박물관장)
10.11(토)	가을빛 사찰순례 (부여: 무량사,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10.18(토)	담마토크	회일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일정 :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시 30분부터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제4회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

- ◎ 일 시 : 2014. 10. 11(토) 15:00~
- ◎ 장 소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집결장소)
- ◎ 대 상 : 동국인 및 정각원신도 누구나^^
- ◎ 참 가 비 : 1만원 (*가족 동반 시 2만원) 기념품, 만찬 제공
※ 참가비는 전액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 됩니다^^
- ◎ 문 의 : 총동창회 사무처 ☎02-733-3993
대외협력본부 ☎02-2260-8993

♣ 10월 4일(토)은 학교입시 관계로 입문반, 교리반, 수행반 수업을 휴강합니다.

「동국 108돌 공덕주 영단」 설치



건학 108돌을 맞이하여 정각원 법당에 「동국 108돌 공덕주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만해스님을 비롯 역대 이사장·총장 등 위패를 모셔 동국발전에 기여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평생위패를 모실 신도님은 상담 바랍니다^^

☎ 2260-3016~19

정각원장 법타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불교 성지순례

원장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인도 성지 순례와, 달라이라마스님 특별법회에 함께 하세요~



- ◎ 지도법사 : 정각원장 법타스님
- ◎ 일 시 : 11.9(일) ~ 11.19(수)
- ◎ 장 소 : 인도(다람살라, 보드가야 등)
- ◎ 신 청 : 여권사본, 40만원(신청금)
- ◎ 금 액 : 299만원
(달라이라마 법회공양비 30만원 포함)

정각원 사무실 ☎ 2260-3016~19

보시동참

9월 22일 불전 공양

₩ 3,230,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승심, 강은희, 고목훈,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동상, 김시현, 김종관, 김지영, 김희정, 남창강, 박성진, 백광호, 서경숙, 서상태, 신창수, 안대준, 양승문, 원서준, 윤소식,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선향, 이성부, 이수준, 이옥희, 이은순, 이재철, 이정호, 이지가, 장세란, 정극하, 정영식, 정찬혜, 조경은, 조경자, 조영, 조찬미,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5,412,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공양

강태광, 강태길

팔정도 보시

윤주영, 장동성

토요일법회 7돌기념 설판 동참자

강승심, 덕일행

공양 보시

❖ 불단과일 : 박희진, 임식(체육교육과),

❖ 불단 떡 : 김현숙(정각원 청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4747명 입니다.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9월 27일 제260호(週刊)



인내(인욕)는 천상에 태어나는 사다리여서 윤회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게 한다.
만약 이(인내)를 수행한다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제법집요경 」



〔 奉 〕 7돌 정각원 토요일법회 〔 축 〕



◎ 20(토), 정각원 토요일법회 7돌을 맞아 기념법회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장스님의 법문과 내빈 축사, 공로·신행상 수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법고 시연(고금스님), 율동·합창(단우물어린이집), 밴드공연(석림회스님 Urban Dharma) 등 흥겨운 축하공연을 통해 7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신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행복도량 정각원 토요일법회가 부처님 가피 가득한 법회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소외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중림사회복지관 행복나눔바자회



◎ 25(목) 정각원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제2회 행복나눔 바자회」를 병행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복지 실현하는 중림복지관으로 더욱 발전하길 축원합니다. _)_



만연한 가을
사찰순례에 함께하실 신도님을 모십니다

- 일 시 : 불기2558. 10. 11(토) 08:00~
- 장 소 : 부여(무량사,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 참가비 : 40,000원
- 대 상 : 정각원신도 누구나
- 신 청 : 법당 앞 안내(선착순)

신도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정각원신도회, 사무실(2260-3017)

고전문학 속의 우리 여인

김승호 교수(국어교육과)

< 초청법사 : 김승호(金承鎬) >

現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 동국대 국문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
- 한국불교어문학회장,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회장 등 역임.
- 저서 : <韓國僧傳문학 연구>, <韓國寺刹緣起설화 연구> 등

1. 과거여성들의 삶과 문학속의 여성

삼국, 고려시대 여인들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성리학을 주 이념으로 수용하게 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분계층에 관계없이 남존여비사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를 잡는다. 여성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른바 삼종지도(三從之道)로 여성의 일생이 요약된 것이다. 남성들은 여자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의지해 살수밖에 없는 존재라 가르쳤고 자기주장대신 순종적으로 살 것을 어릴 때부터 주입했다. 여성에게 결혼은 가시밭길과 마찬가지로였다. 아무리 곱게 자란 여성이라도 시집살이의 고통과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각처에 전해오는 시집살이 노래 등에는 여인들의 가혹했던 삶과 넋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왕가, 양반집으로 시집간 여인이라 해서 행복하게 산 것만은 아니다. 평민여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타고난 팔자러니 생각하며 스스로 달래면서 힘들고 모진 세월을 이겨냈다.

여성들의 이 같은 운명이 조선시대로 마감된 것은 아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조선시대 여인들과 비슷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여인들이 가난한 살림, 턱없이 많은 자식들, 무능한 남편, 그런 악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다.

우리 고전문학에는 과거 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들에 밀려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으나 지혜, 의리, 희생, 佛心으로 충만한 여인들의 삶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평강공주, 심청, 설씨녀, 박씨부인니, 광덕의 처, 호랑이 처녀 등등을 보면 남성보다 훨씬 성숙한 사고와 행동의 소유자들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들은 남편, 가정,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구원하는 단계까지 보여준다. 그렇게 문학속의 여인들은 연약하거나 수동적인 면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성을 억압하면서 동등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그 여성들은 단순히 상상 속에서 꾸며낸 여성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고난의 시대에 이 땅에서 살다간 어떤 누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아닐 수 없겠는데 새로운 여성상이 요구되는 우리시대에 그들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2. 고전 문학 속의 여성상

희생적인 여인

* 심 청

원래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었으나 맹인이 된 심봉사가 늙은 나이에 심청을 낳는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숨지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소녀가장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중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말을 듣고 몸을 팔게 된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뒤 심봉사가 실의에 젖어 지내다가 뽕덕어미를 만나 같이 산다. 용왕의 덕으로 살아난 심청이 중국황후가 된 뒤 부친을 생각하다가 봉사 잔치를 열게 된다. 그곳에 참석했던 심봉사와 심청간의 부녀상봉이 이루어지고 감격 끝에 심봉사가 눈을 뜬다. (심청전)

* 호랑이 처녀

신라 원성왕 때 김현이 흥륜사 복회에 참석했다가 한 처녀를 만나 귀가 길에 야합(野合)을 했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다. 그래도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처녀호랑이와 달리 오빠 호랑이들은 살생을 많이 하여 하늘의 벌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된다. 그러자 처녀 호랑이가 자기오빠들, 남편을 위해 자신이 벌을 받기로 한다. 사람을 해코지하던 호랑이아내는 남편에게는 스스로 호랑이를 죽인 것처럼 연출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내는 죽고 그 덕에 김현은 큰 포상을 받는다. 김현은 죽은 아내를 위해 호원사란 절을 세우고 그 명복을 빌었다. (삼국유사, 김현감호)

의리의 여인

* 설씨녀

설씨녀는 울리에 사는 가난한 집의 딸로 용모가 아름다웠다. 늙은 아버지가 징용대상이 되자 여자는 크게 근심했다. 이웃마을에 사랑부에 가실이란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정을 듣더니 자신이 대신해 전장에 나가겠다고 했다. 감격한 아버가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평소에 설씨녀를 사모하던 가실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혼인을 서둘렀다. 그러자 설씨녀가 이를 거부하며 방위에서 돌아온 뒤에 하자고 했다. 가실도 이에 동의하며 신표와 아끼던 말을 맡기고 떠났다. 그러나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가 다른 사람과 몰래 혼인을 추진했다. 설씨는 절대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아버의 명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지나고 말았다. 그런데 설씨녀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려는 그날, 그리 그리던 가실이 돌아왔다. 이후 둘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삼국사기 설씨녀)

* 도미의 처

도미는 백제 사람인데 성실하고 착한 농부였다. 도미에게는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바르기로 소문난 아내가 있었다. 개루왕이 이를 듣고 그 의리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남편을 따돌리고 아내만 남은 집에 근신을 보내 왕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그녀를 겁탈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종을 잘 꾸며 대신 들여보내 위기를 넘겼다. 뒤에 속은 것을 안 왕이 남편인 도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눈을 도려낸 뒤 작은 배에 태워 강위에 흘려보냈다. 왕이 다시 도미의 처를 찾아 구슬리자 그녀는 월경중이라며 핑계를 대고 강가로 도망간다. 우연히 발견한 배를 타고 흘러가다가 남편이 있는 천성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구조되어 고구려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 (삼국사기 도미)

지혜로운 여인

* 이춘풍의 처

숙종 때 서울 사는 이춘풍은 음주가무에 가산을 탕진한다. 기생인 추월이도 그가 돈이 떨어지자 천대하게 되는데 아내가 굶주린 채 기동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반성한다. 그뒤 내외는 열심히 일해 재산을 불렸다. 돈이 모이자 춘풍은 있는 돈과 빌린 돈 2500냥을 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가자마자 평양 기생 명월이에게 빠져 돈을 잃게 된 춘풍은 하인노릇을 하며 연명한다. 소식을 들은 아내가 남북차림을 하고 신임감사의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따라간다. 명월이의 교활함과 춘풍의 비참함을 확인한 아내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한양으로 돌아와 거들먹거리던 남편 앞에 아내가 비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에게 호통친다. 그제야 비장이 아내였음을 알게 된 춘풍이 개과천선하고 아내와 합심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이춘풍전)
